

아이돌봄, 저출산에 '영아종일제' 줄고 맞벌이에 '시간제' 늘어

광주시 아이돌봄 종합계획 분석 돌봄서비스 이용 가구수 꾸준히 증가 시, 아이돌보미 양성 등 서비스 확대

광주지역 아이돌봄 서비스도 저출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부부가 늘어난 탓에 최근 3년새 광주에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영아를 돌보는 종일제를 이용하는 부부가 줄고 있다는 것이다.

18일 '2024년 광주시 아이돌봄 종합계획'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년)간 광주지역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 가구수(중복제외)는 2021년 2031가구에서 2022년 2280가구, 2023년 2519가구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시행

되는 사업으로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아종일제'와 12세 이하 아동에게 등하원 동행 등 틈새 시간 동안의 돌봄을 제공하는 '시간제 서비스'로 나뉜다.

하지만 최근 3년간 광주지역 맞벌이 부부들의 종일제 서비스 신청은 감소했지만 시간제 서비스 사용은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1년 광주지역 아이돌봄 이용가구 중 시간제 이용가구는 1914가구로 94%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총 이용가구 2519가구 중 97%(2432가구)가 시간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했다.

반면 종일제는 2021년 117가구(6%)가 이용했지만, 지난해 단 87가구(3%)만 활용했다.

광주지역 저출산이 이러한 변화의 이유로 꼽히고

있다. 36개월 이하 영아가 줄고 있어 종일제 서비스 이용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추가로 정부의 부모급여(0세 아동을 돌보는 가정에 월 70만 원, 만 1세를 돌보는 가정은 월 35만 원의 급여 지급)정책도 한 몫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부모급여가 지급돼 종일제 보다는 시간제를 이용하는 부모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광주시는 이러한 변화를 감안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계획했다.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 제공해 양육 부담을 줄이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청소년 부모의 경우 서비스 이용 금액의 90%를 지원한다.

양육공백 기준도 확대한다. 지난해까지 부모가 육아휴직 중일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던 것과

달리, 쌍둥이(12개월 이하) 이상 다태아 가정의 경우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 중이어도 양육공백 가정에 포함시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지난해까지 초등학교 등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만 지원했지만 올해는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을 실시한다.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에 따라 아이돌보미 인력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아이돌보미 양성도 체계화·전문화 한다.

지난해까지는 아이돌보미를 우선 채용한 후 교육과 현장실습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지만 올해부터 여성가족부는 지정된 기관에서 교육을 수료한 사람만 아이돌보미로 채용될 수 있도록 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한 교육체계로 개편하면서 아이돌보미 지원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광주지역 아이돌보미 교육기관으로는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광주대 평생교육원과 광주여대 산학협력단이 선정됐다. 이 기관들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아이돌보미는 광주 5개 지자체별로 총 166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아이돌봄 지원 조례에 따라 기관 종사자 및 돌보미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시비 4000여 만원을 투입해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에게 1인당 특별수당 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아이돌보미 800여명에게 3만원 가량의 의료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아이돌봄 사업 확대로 늘어나는 돌봄수요에 대응하고 아이돌보미 양성과 연계로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적 일자리 또한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물 많이 드시고 야외활동 자제하세요”

남구 방문보건팀, 폭염 취약계층·경로당 방문 특별관리



광주시 남구 방문보건팀이 한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폭염 대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시 남구 제공>

광주시 남구가 폭염 취약계층인 고령층을 직접 방문해 건강 상태를 살피고 폭염 대비 교육을 시행한다.

남구는 보건소 직원 10명으로 구성된 방문보건팀이 폭염 취약계층 세대와 경로당을 방문해 폭염 대비 특별 관리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특별 관리 대상은 취약계층 세대 구성원 및 고령 1인 가구를 포함한 720명과 경로당 256곳을 이용하는 어르신 2092명이다.

남구는 오는 9월 13일까지 13주 동안 각 취약계층 세대와 경로당을 4차례씩 방문할 계획이다.

매 방문에서는 취약계층과 어르신의 건강을 확인하고 '물 자주 마시기'와 '야외활동 자제' 등 4대 건강 수칙을 비롯해 '폭염 발령시 행동 요령',

'온열질환 증상'에 따른 응급조치' 등의 교육이 진행된다.

남구 관계자는 "주민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폭염 이외에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 상태도 점검하고, 수시로 안부 전화를 걸어 전반적인 건강을 보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SINCE 1952

영산강환경청, 집중호우기간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 단속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6월-8월)동안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 단속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특별 감시 단속은 집중 순찰 및 특별단속 뿐 아니라 기술지원도 함께 진행된다.

먼저 집중 순찰을 통해 영산강 관할 구역 내 산업단지 7개소 및 6개 광역상수원 상류지역, 2개 보 등 수질오염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폐수 무단방류와 수질 이상유무 등을 확인한다.

특별단속은 장마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광역 상수원 상류 오염물질 배출시설, 휴가철 캠핑장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또 광주·전남·제주지역에서 운영 중인 환경시설에 문제가 발생해 기술지원을 요청할 경우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녹색환경지원센터 및 민간환경감시단과 협업체 해당 사업장에 기술지원도 할 계획이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주간' 환경부, 21일까지 운영

환경부는 이달 21일까지 '2024년도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주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정화주간에는 환경부 소속 및 산하기관과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가 중심이 돼 참여한다.

정화활동 대상지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등 5대강 유역 지류, 지천을 포함한 전국의 주요 하천과 하구 등이다. 이번 정화활동에서는 하천에 유입돼 바다까지 흘러갈 우려가 있는 플라스틱류 등 방치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처리한다.

환경청은 하천과 하구변을, 수자원공사와 농어촌공사는 각각 댐 보, 농업용 저수지를, 지자체는 민관 합동으로 하천과 하구변 쓰레기 처리를 맡을 계획이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차별받는 소수자의 인권을 들여다보다

제2회 북구 장애인 인권영화제... 7월4일 북구청소년수련관

제2회 '북구 장애인 인권영화제'가 다음달 4일 북구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다.

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센터)는 북구 장애인 영화제를 다음달 4일 오전 11시부터 광주북구청소년수련관에서 연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영화제는 장애인의 시선이 담긴 영화를 통해 차별 받는 소수자의 목소리를 접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인권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화제에선 패럴림픽 종목 중 하나인 보치아에 도전하는 장애인들의 이야기를 다룬 '나의

세계'를 비롯해 '맛의 기억', '거짓말', '혼자' 등 4작품이 상영된다. 오후 3시 30분부터 감독과 관객의 대화 시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화면해설, 자막 등 배리어 프리(barrier free)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서비스를 제공해 누구나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한다.

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관계자는 "이번 영화제가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육군 31사단, 기후위기 재난 대응태세 강화

광주기상청 기상정보 교육 참가

육군 31보병사단이 기후위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대응태세 강화에 나섰다.

육군 31보병사단(31사단)은 광주지방기상청에서 31사단 및 예하부대 기상-재난 관련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방재기상정보시스템 및 날씨알리미활용 등 기상정보 활용 교육'에 참가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5월 24일 국방부 주관으로 실시한 2024년 하계 대비 전군 재난 안전 주요 지휘관 회의의 간 중점사항에 따른 조치다.

기상정보 발령 시 선제적 재난단계 격상 발령 조치와 재난 시 비상대비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기상예보 모니터링 및 적시적인 상황 전파에 대해 31사단 차원에서 구체적인 대비책을 세우기 위함이다.

이날 토의에서는 최신 기상관측장비를 탑재한 기상관측차량 활용방안과 기상관측및 정보공유를 통해 장마 및 태풍 등 악기상 시 사전 기상데이터를 현행작전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31사단과 광주지방기상청은 기상관측차량 작전지역 현장 지원, 군사작전과 야외기동훈련 등에 필요한 기상 위험 사전 파악, 실시간 관측자료수집·분석·제공, 호우 긴급재난문자 발송 등 군사 활동에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토록 협의했다.

조기보(중령) 정보참모는 "광주지방기상청과의 협의를 통해 사단 현행작전 기상지원 및 재난 대응 시스템을 보강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기상청과 유기적인 소통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한 가운데 즉·강·급 대비태세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